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네그랄 공동체에서  
오늘, 2025 년 3 월 11 일 19 시 21 분  
**데레사 마리아 실바나 게린조니 수녀님이**  
**(TERESA, Sr M. SILVANA GHERLINZONI )**  
82 세로 (62 년간의 수도생활 )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전례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빛나라'라고 노래했듯이, 성부께서는 62 년의 봉헌 생활 동안 선한 목자께 시선을 돌리고 목자의 기쁨과 광채를 발산한 데레사 수녀를 부르셨습니다.

데레사는 1942 년 8 월 30 일 코르볼라(RO)에서 신앙심이 깊은 대가족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6 남 11 녀중 둘째입니다. 데레사는 태어나던 날 성 마리아 막달라를 기리는 마을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8 년 9 월 15 일 알바노 라치알레-모원 (RM) 으로 입회하여 1961 년 9 월 2 일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1962 년 9 월 3 일 첫 서원, 1967 년 9 월 3 일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첫 서원 전날, 수녀님은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한 목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간결하고 깊이 있게 적었습니다:

양성 초기부터 데레사 수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사려 깊으며 젊고 사교적이며 개방적이고 성실하며 모든 사람을 돕고 수녀들을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유기서원 수녀 시절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 너무 많은 매우 착한 수녀로 묘사됩니다.

첫 서원 후 베로나-보르고 밀라노(VR)에서 사목 생활을 했고, 1964 년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으로 되돌아와 공부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본당 사도직 외에도 1965 년 폴펫(BL), 1966 년 발레 성 조르지오(PD), 1967 년 비첸차- 성 아고스티노(VI) 등 다양한 공동체의 유치원에서 주로 교육 분야에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1979 년 건강상의 이유로 알바노 라치알레-모원으로 다시 돌아왔고, 1981 년에는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1982 년 페스키에라 보로메오(MI)의 베톨라 에서 가정 사목으로, 1989 년 카스텔 다자노(VR)에서 가르치는 일을 재개하여 2013 년까지 지속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3 년부터 네그라르 공동체(VR)로 옮겨져 나약한 건강을 평온하고 기쁨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고 항상 즐겁고 형제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신앙심이 깊고 인간적, 기독교적 가치가 풍부한 대가족의 둘째로 그 마을의 첫 번째 빠스또렐라였다고 공동체 수녀들은 증언합니다. 신앙이 풍부한 그녀는 건강의 다양한 시련을 항상 받아들였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유머러스할 정도로 유쾌했습니다. 수녀님은 상황을 심각하지 않게 하여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더욱 즐겁고 유쾌하게 형제애를 만들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오늘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고, 항상 그녀를 특징짓는 평온함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년 동안 데레사 수녀에게 필요한 치료와 애정을 베풀어 준 네그라르 공동체와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면서, 기쁨과 신실한 빠스또렐라로서 증거해 주신 데레사 수녀님께 감사드리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한 건강의 선물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총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5 년 3 월 11 일, 로마  
사순 제 1 주간 화요일  
성 코스탄티노